

【60년 교류 역사를 느낀 산노제(새너제이) 방문】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카야마 시민 우호친선 방미단 여러분과 함께 자매도시 체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산노제 시를 방문했습니다.

산노제 시에서는 산노제 시 정부 주최에 의한 환영식이 개최되어 산노제, 오카야마 자매 도시 협회 주최 환영 만찬과 문화 교류 행사, 일본 가에서의 일본계 축제, 송별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카르도 산노제 시장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60년 전, 오카야마시의 인구는 26만 명, 산노제 시는 20만 명으로 함께 농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오카야마 시는 72만 명의 정령 지정 도시로 산노제 시는 104만의 "실리콘 벨리의 수도"로 불이룰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다양한 과제도 존재하는 듯 인구의 급증으로 주택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부 격차가 확대되어 노숙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카야마에서 대기 아동 문제 등의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에 곤란을 입고 있다는 의미로서는 양 시의

과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제 40회 일본계 축제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축제에는 많은 일본계 3세, 4세 분들이 참가했었습니다만, 다들 밝고 일본에 뿌리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국가의 차이를 넘어 참가자가 하나가 된 축제에 감격했습니다.

이번 산노제 방문은 산노제 시 정부와 산노제 오카야마 자매 도시 협회를 비롯해 현지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일본인 특유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환대의 정신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장엄한 키비락의 연주와 오카야마 고락관 고등학교의 일본 전통북 클럽 여러분에 의한 힘찬 연주가 회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 오카야마 시민 우호친선 방미단, 오카야마 시의회 행정시찰 방문단, 오카야마 상공회의소 경제방문단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

오카야마시와 산노제시는 서로 첫 자매 도시라는 특별한 관계로 60년의 긴 세월을 걸쳐 교류를 쌓아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선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하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양시의 우호 관계를 소중히 키워 나가하고자 합니다.